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5월 26일(금)
(윤력 4월 7일)
Пятница
26 мая 2023г.
№ 20 (1203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들이 마지막 종을 울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에서 마지막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교육 기관에서 1,411명이 졸업한다. 안드레이 코발 추크 부시장이 22번 학교에서 열린 졸업 행사에 참석했다. 22번 학교에서는 올해 126명의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다. 세르게이 나드사딘 시장은 학업 과정 내내 아이들을 지원해준 교사와 학부모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정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했다.

학생들은 5월 26일에 문학, 화학, 지리 시험을 치르게 된다.

▲ 5월 2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2번 학교.

(이예식 기자 촬영)

2023년 사할린주 예산 142억 루블리 증액

지난 5월 18일 사할린주 의회 의원들이 2023년 지역 예산과 2024년 및 2025년 계획을 수정하여 예산을 142억 루블리 증액하겠다고 지역의회 공보부에서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올해 예산의 실제 집행에 근거하여 지역 재무부의 수입, 지출 및 적자 규모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총 수입은 142억 루블리 증가한 1,513억 루블리가 되었다. 주요 재정 수입은 "사할린-1" 프로젝트 소득세와 관련되어 추가로 80억 루블리가 해당된다. 또한 연방 영토 개발 기금에서는 낡고 긴급한 주택에서 시민들을 이주시키고 유틸리티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사할린 주에 54억 루블리를 할당했다. 그리고 9천245만7,000루블리가 생물 자원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수입으로 할당되었다.

예산의 지출 부분도 142억 루블리 증가하여 2,169억 루블리를 기록했다. 이 변경 사항은 사할린주의 27개 주 프로그램 중 16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지출(107억 루블리)은 목표 투자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추가 자금들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 주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64억 루블리(낡고 긴급한 주택에서 시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자본 투자에 대한 공동 자금 조달 포함) 증액.

· 교통 인프라 및 도로 시설 개선에 추가로 59억 루블리가 할당됨. (작업 속도가 빠른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신규 활주로 건설, 유즈노사할린스크 - 홈스크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 오하노선 도로 건설, 홈스크 - 와니노 노선의 지역 운송에 대한 주 관세 규정으로 인한 손실된 수입을 보상하기 위한 법인에 대한 보조금, 운행되는 버스 50대의 천연 가스 구매, 아니와 시 경기장 방향 도로 수리 보조금에 재정이 할당됨.)

· 주민에게 양질의 주택과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6억 3,290만 루블리가 추가로 할당되었으며, 특히 건물 입구, 아파트 창문과 출입구 수리 명목으로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 1억 1,000만 루블리가 할당됨.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전에 책정된 예산에 더하여 모두 2,000개의 출입구를 수리할 예정.

· 보수 비용으로 추가 자금이 할당되었으며 이전에 책정된 예산에 더하여 1,200개 공

공 지역을 보수할 예정임. 쿠릴스크 지역 고르노예 마을의 난방 시설 및 열 공급 네트워크와 세베로쿠릴스크의 하수도 시설 점검을 위해 5,100만 루블리 할당. 토마리 지역 공공 부문 직원을 위한 시립 아파트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보조금으로 800만 루블리 할당.

· 문화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실행의 일환으로 홈스크 중앙 도서관 건물 외관 개조,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악기 구입,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콤소몰레츠' 영화관 겸 콘서트 홀 건물을 연극 공연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설계, 수리 및 설치 작업 등에 자금 지원.

· 체육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홈스크의 수영장,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의 '쉬코탄 아레나' 지붕, 코르사코브 "트리움프" 스포츠 학교의 복식 체육관, 마카로브 스포츠 학교 부지 등 스포츠 시설 정비를 위해 추가로 99 만 루블리가 할당됨.

· 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 교과서 11만 8,000권을 구입하는 데 9,300만 루블리, 소콜 마을에 있는 "로신카" 유치원의 외관과 현관, 지붕을 수리하는 데 710 만 루블리가 배정됨.

(3면에 계속)

단신

사할린 주지사, 3등급 "조국 공로 훈장" 받아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3등급 조국 공로 훈장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5월 17일 해당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다.

텔레그램 채널 "네달니 보스토크"에 따르면, 마라트 쿠스놀린 부총리가 사할린 주지사에게 훈장 수여 제안을 주도했다. 그 이유는 수도 건설, 특히 노후 주택 재정부에서 성공적 결과를 낸 덕분이라고 한다. 사할린 지역은 노후 주택 철거가 예정보다 앞당겨진 몇 안 되는 러시아 지역 중 하나이다.

알레리 리마렌코가 주지사로서 국가로부터 2020년에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4등급 조국 공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지역 정부, 중국에 사할린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청

사할린 지역은 2023년 9월 28~29일 이 섬 지역에서 열리는 극동 에너지 포럼에 중국 파트너들을 초청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5월 2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중국 헤이룽장성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사할린 지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파트너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고 사할린 지방 정부의 보도부에 발표했다.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비즈니스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선, 우리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포기한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완제품 구매자와 생산 및 가공 부문의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 특히 중국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밝혔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건축 전람회 개최

5월 24일 - 25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스토리 엑스포» 전문 특화 전시회가 열렸다. 이에 대형 건설 기업, 산업 및 주택 건설, 도시 건축, 주택공공 사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시회 일환으로 좌담회, 콘퍼런스, 기획 소개 등의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아니와, 현대 예술 학교 개교

370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술 학교가 5월 23일 아니와에서 문을 열었다. 3층 건물에는 강의실, 대형 도서관,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강당이 있다. 사할린 지방 정부의 보도부에 따르면 개회식에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석했다.

건물 1층에는 10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350석 규모의 대형 콘서트홀, 분장실, 공연실, 극장실 및 여러 기술실이 있다. 2층에는 관리 사무실, 회화 및 드로잉 교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은 음악 전용 공간이다. 해당 학교에는 음악 이론, 음악 정보학, 관악기, 건반 및 현악기, 민요 및 학술 노래, 합창 수업 및 실내 오케스트라 수업이 있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러시아 및 CIS지역 동포 언론인 광주에 모여

지난 19일(금) 광주 호남대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미래! K미래/문고 답하다란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광주 고려인마을, 광산구, 호남대학교 주최로 진행되었다. 주최측에 따르면 K는 코리아,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말한다. 즉 국가 영역을 넘어선 Korea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운명이라는 의미다. 이번 대회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행사 일환이기도 해서 필자가 이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K'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외친 "코레아 우라!"가, 삼일만세운동에 호응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회의'를 결성한 고려인 동포들이 4개 국어로 번역해 전 세계에 타전한 독립선언문이, 연해주 일대를 뒤튼 '대한의용군'의 합성이 'K'의 뿌리입니다"라고 광주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축사를 시작했다.

뒤이어 인사말씀에서 호남대 박상철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과거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민족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며, 또한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고려일보'사의 김 콘스탄틴 총주필은 모든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고려일보' 100주년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오래 활동하고 현재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을 지닌 김병학 문학인에게 감사패와 카자흐스탄 상징 기념품을 수여했다.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학



교 아시아연구소장 김 게르만 교수는 '고려일보 - 카자흐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통합하는 정보 및 문화 허브'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한국어로 발표했는데,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로 창간 100주년은 맞은 '고려일보'는 독립국가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나이가 같다. 이 신문의 과거 제호는 '선봉'과 '레닌기치'였다. 그래서 이 신문 창간 90주년을 기념하여 '세 개의 이름과 하나의 운명'이란 책(저자 김 게르만 박사. -본사 편집부 주)을 펴냈다. 이번 발제문에는 수많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 활동가들 사이에서 뉴스와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고 본질적인 변화, 인터넷의 글로벌화 시대, 언론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경영의 도입,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죽음', 전체주의 국가에 민주주의 발전이 일어났고 - 이 모든 것이 '고려일보'의 활동을 개혁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신문의 언어는 러시아어가 기본 언어로 되어있고, 한국어 지면은 전통적으로만 간행될 뿐 읽는 이가 없게 되었다. 끝으로 '고려일보'가 시대정

신에 부합하는 신문으로서 러시아어를 쓴 세 세대 고려인을 위한 문화-정보지의 역할을 이전과 같이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결론을 제시한다.

김 게르만 교수는 "소련 고려인들 역사와 운명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그리고 이들의 광활한 거주지를 고려하여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학자들도 집합적인 학술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1세션은 러시아 및 CIS에서 활동하거나 전에 활동한 동포 언론인들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다수는 '고려일보'사에서 활약한 기자였다.

'러시아스키에 코레이치(러시아 코리안스)' 미디어그룹 대표 천 발렌틴은 이날 1980-1990년대 '고려일보'사에서 기자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이야기했다. 천 발렌틴은 이미 25여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코리안스'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몇년 전부터는 루스코르 통신사도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작가 김 블라디미르 역시 '레닌기치'(전 고려일본)의 기자로 활동했다. 소련시기 때 이 신문은 공화국간 신문으로 돼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배포됐었다.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나라 - '레닌기치'는 우즈베키스탄에 지부를 두어 기자 3명이 활약했다. 가장 먼저 뽑힌 기자는 바로 김 블라디미르 작가였고 나중에 지부장을 맡았다. 당시(1980년대 말기) 그는 한글을 전혀 몰랐는데, 우리 말을 모르는 게 부끄러워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한국어학습장이 전혀 없었던 때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주로 자습을 하면서 다른 여러 기회를 이용했고, 나중에는 한국어 교재까지 편찬할 정도가 되었다. 88올림픽 이후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한국어가 인기가 많아져 이 교재가 완판되기도 했다.

그는 '레닌기치'에서 일했던 시절이 '행복한 시기'라고 했다. 이 말에 이 신문사에서 일했던 모든 발표자들이 공감했다.

'레닌기치'에서 약 20여년간 번역권, 상급기자, 문학부장을 지낸 이정희 작가는 사할린 출신이다.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사라토프농업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그는 한글로 단편소설을 쓴 적이 있었다. 이 소설이 '레닌기치'에서 게재되고 이 기회로 신문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크렐오르다로 갔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국어로 발표한 그는, '고려인에게 우리말 신문은 무엇이였을까'라는 발제로 "한국말, '조선말', 아니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여러 지역에 분포된 고려인들이 이르는 '고려말', 이 3가지 중 어떤 말이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고 그저 우리말이라면 누구나 우리 민족어를 떠올리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30여 작품을

쓴 이정희 작가는 신문 역사도 간략하게 말한 후 한글로 작품을 쓰는 문인들에게 '레닌기치'가 아주 소중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려사람' 사이트 운영자인 한 블라디슬라브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가들과 모국어 신문 <선봉> - <레닌기치> - <고려일보>'란 주제로 발표했는데 역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신문과 운명이 연계된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했다.

필자는 '고려일보'와 사할린의 '새고려신문'의 공통점을 말하고 74년의 '새고려신문'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했다.

1세션은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신문' 김 브루트 편집장, '미디어사람'협동조합 체예진 이사장, 전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장원창의 토론발표로 마감되었다.

2세션의 주제는 'K의 문화유산'이었는데 고려인 문화 자료 아카이브 방향 모색, 고려인문화관 소장 자료, 고려인콘텐츠사업단, 고려인공동체의 민족문화전승전략 - 고려극장 등을 중심으로 발제를 청취했다.

3번째 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K는 어디로 가는가?'란 주제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나뉘어 4가지 문제를 토론했다. 교육테이블에는 '국내 정착 고려인 4, 5세 교육' 문제, 문화 테이블에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의 문화예술교류 방향', 정책 테이블에는 '법적 지위, 노동문제, 국내 정착 지원', 정체성 테이블에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범위와 연대'의 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학술대회가 좋은 토론장이 되어 앞으로 이러한 의의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광주에서 배 빅토리아)
(김 파벨 촬영)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 러시아 멀티미디어 전시회 "조국의 하늘" 개막

이 행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전 러시아 대중 운동 "러시아 수색 운동"과 "승리 기념관"이 공동 주최로 하는 세 번째 공동 전시회이다. 이 전시 프로젝트는 "조국의 하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색대원들이 찾아낸 50명의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이들은 소련의 영웅과 러시아의 영웅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공로에 대한 인정을 받기 전에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사할린주 문화기록부 홍보실에 따르면 이번 전시 프로젝트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역사 공원 "러시아는 나의 역사"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이 전시회는 또한 위대한 조국 전쟁 당시 소련의 하늘 수비대가 사용한 29대의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IL-2 지상공격기 및 Pe-2 폭격기와 같은 잘 알려진 전투기와 Ar-2와 같은 러시아 생산 모델,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당시 최신형이었던 YAK 및 MiG 외에도 구형모델인 I-153 "차이카" 복엽기도 포함된다.

"사할린 지역 수색 작업에서 발견된 물품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비행기 추락 지점을 찾고 거기에 그들

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전시회가 전직 군인 조종사들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사할린 지역의 전 러시아 대중 운동 '러시아 수색 운동' 지역 지부장 아르쎬 반두라가 말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Всероссийская мультимедийная выставка "Небо Родины"

Это третья совместная выставк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 увековечиванию памяти погибших при защите Отечества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В выставочном проект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судьбах 50 летчиков, установленных поисковика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ебо Родины". Это летчики, которые удостоены высших званий —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Героя России, но, к сожалению, не успевшие получить свои награды.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работает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 20 мая по 4 июня 2023 г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29 самолетах, на которых сражались советские защитники неб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Это и такие широко известные боевые машины как штурмовик Ил-2 или бомбардировщик Пе-2, и менее популярные модели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пример, Ар-2, и новейшие на тот момент истребители Яки и МиГи, и устаревшие к началу войны малоскоростные бипланы И-153 "Чайка".

—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йдены во время поисковых рабо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ждый год мы находим новые места падения самолетов, устанавливаем там памятные таблички.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эта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а бывшим военным летчикам, и мы узнаем их имена, — поделился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Бандура.

유즈노사할린스크

'2023 봄 농업 박람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수백 명의 손님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2023년 봄 농업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사할린주 농업 무역 부도부에서 전했다.

이 박람회는 사할린 주 정부의 총재인 알렉세이 벨리크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그는 농부와 정원사들의 노고에 감사로 표하고 그들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 박람회의 주요 목적은 농산물 생산자들에게는 판매처를 제공하고, 섬 주민들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농업 박람회는 지역 내 11개 지역에서 온 200여 명의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 사할린 주민들은 채소, 육류, 유제품, 꿀 외에도 묘목, 꽃, 씨앗, 수공예품 및 각종식품을 박람회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8면에 계속)

사할린국립대, 사할린 한국어 교사 세미나 열려

사할린한국교육원과 사할린국립대학 어문, 역사 및 동양대학 한국어과는 지난 5월 19일에 "사할린주 한국어교육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교육방법론세미나(워크숍)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더불어 올해는 러시아 연방에서 교사와 스승의 해인 만큼 의미가 컸다.

세미나에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와 예술, 한민족 스포츠(태권도와 씨름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사할린국립대학 동양대학 한국어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동양 김나지아와 제2김나지아, 코르사코브의 제2중학교와 제4중학교, 아니와의 아동예술학교와 한글 학교, 돌린스크 한글학교, '에트노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동예술학교와 제9번 '체부라슈카'유치원, 사할린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 팀, '토르나도'태권도 스포츠클럽, 사할린주 씨름협회,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 - 사할린주 총 14개의 단체와 기관을 대표했다.

참석자들은 조직을 소개하고 교육경험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학장인 임 엘비라 교수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자하는 생각



은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독특한 교육, 문화, 스포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 수 있기때문에, "이 세미나는 매우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어과 교수들은 '무제한적 지식 소스 발견'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천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2023년 가을까지 참석자들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승훈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교류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참석자들의 높은 전문성에 주목하여 세미나를 매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맞아 새 얼굴 공개

해외에서 발간된 가장 오래된 우리민족 한글신문 창간 100주년 맞아 제호와 서체, 신문 디자인 바꾸고 또 다른 100년 향해 시작

해외에서 발행되는 우리 민족 신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려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제호와 서체, 신문 디자인으로 새단장하고 또 다른 100년의 시작을 알렸다.

고려일보는 조선일보사, ㈜산돌, 강병인 작가와 흥동원 글씨미디어 대표, '미디어 사람협동조합'과 함께 5

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려일보 100주년,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란 주제로 고려일보의 새로운 제호와 신문 디자인 전달식을 가졌다.

고려일보는 한반도 밖에서 발행되는 우리 민족의 한글신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 1923년 3월 1일 러시아 연해주에서 '선봉'이란 이름으로 창간된 이 신문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 키질오르다로 이전한 뒤 1938년 5월 15일부터 '레닌기치'로, 이후 1978년 알마티로 옮겨 1991년부터 '고려일보'로 제호를 변경했다.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유라시아 대륙에서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지켜온 고려일보는 2023년 창간 100주년을 맞아 새 모습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게 됐다.

그 시작은 2022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까레이치, 고려사람>이란 특별 사진전시회에서 비롯됐다. 이 전시회에 안 빅토르 작가의 사진 기증을 도운 채에진 미디어사람 이사장은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글 멋글씨로 한글의 가치를 찾고 알리는 강병인 작가를 만나게 됐다. 고려일보 한국특파원이기도 한 채 이사장은 강 작가에게 고려일보의 역사를 소개하며 신문의 간판적인 제호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고 강 작가는 이에 망설임 없이 응했다.

강 작가의 글씨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책의 제호부터 참이슬, 화요, 드라마 대왕세종, 미생, 영화 의형제 등이 그의 글씨다. 강 작가는 지난 4개월 동안 수십개의 시안을 만든 끝에 새로운 제호를 탄생시켰다. 강 작가는 이번 제호를 쓰면서 느낀 바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 미국땅에서 그 나라의 말이나 문자,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고려인의 자부심과 우리말 그리고 한글을 지키려는 100년의 그 노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광개토대왕비의 웅혼하고 기세 넘치는 글씨, 그리고 기하학적인 도형을 바탕으로 미래까지 담은 한글 첫 모습인 훈민정음체에 담긴 정신을 '고려일보' 글씨에 담으려고 정성을 다했다. 무엇보다 꿈고 바쁜 획, 그리고 여백을 통해 참 언론의 역할과 시대정신에 유연한 '고려일보'가 되달라는 염원을 담았다."

고려일보는 제호뿐만 아니라 서체와 신문 디자인도 바꿨다. 여기에는 조선일보의 서체와 한국 최초의 폰트 파운드리 ㈜산돌, 조희환 디자이너, 그리고 흥동원 디자이너의 손길이 더해졌다.

석금호 ㈜산돌 의장은 "미국땅에서 고려인들이 척박한 환경과 여건에 굴복하지 않고 고유한 우리 문화와 정신,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존경스럽다. 그리고 첨병 역할을 했던 고려일보가 100주년을 맞이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고 듣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산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폰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고려일보 새 얼굴 탄생의 주역들뿐만 아니라 사할린 새고려신문 배순신 대표, 러시아 코리아스 신문사 첸 발렌틴 대표,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 사이트 한 블라디스라브 대표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고려일보사 김 콘스탄틴 총주필은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제호의 등장은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가 크다. 고려일보는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됐다. 고려일보를 대표해 조선일보와 강병인 작가, 흥동원 대표를 비롯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고려일보는 고려인들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이 신문은 모든 고려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고려일보는 고려인들의 이주사를 기록하며 지난 100년 동안 연해주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고려인들의 곁을 지켜왔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말로 발행하는 것을 고집하며 지금도 매주 구독자를 찾아가고 있다. 오랜 시간 우리 문화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온 고려일보가 다음 백년에 더욱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재외동포신문)



5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일보의 새로운 제호와 신문 디자인 전달식에서 (왼쪽부터) 흥동원 글씨미디어 대표, 강병인 작가, 김 콘스탄틴 고려일보 총주필

2023년 사할린주 예산 142억 루블리 증액

(1면의 계속)

· 정보 사회 발전의 일환으로 파라무쉬르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백만 루블리, 흠스크 지역 소프호즈노예 마을(116가구)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270만 루블리가 할당됨.

· 학생들의 수학 여행 횟수 증가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광 부문에 대해 4,600만 루블리 증액. 올해는 22,000명 이상의 사할린과 쿠릴의 청년들을 여행에 참가시킬 계획임.

· 사할린 고속도로에 7개의 사진 및 비디오 녹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약 1,000만 루블리가 할당됨.

지방 예산으로의 이전은 86억 루블리 증가하여 총 803억 루블리가 되었고, 지방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조금은 5억 루블리 증가했다.

지역 재무부의 적자는 97만 4,000루블리 증가하여 656억 루블리에 달했다.

"회계감시회의소의 결론에 따르면 수정안을 고려한 지역 예산의 매개 변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합니다. 주두마의 법무위원회는 첫 회의의 주제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의 요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결정은 예산 집행과 지방 자치 단체로의 적시 이전을 제공

하기 위해 단일 두마 회의에서 법안을 두 차례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라고 예산세무위원회 위원장인 나탈리아 자하르추크가 말했다.

알렉세이 벨리크 주정부 총재는 사할린주 예산이 양질의 균형 잡힌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예산 조정에도 함께 노력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모든 우선 순위는 이전과 같이 유지되었다. 즉, 첫 번째로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사회 및 문화 시설 건설이 자리잡고 있다.

의원들은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2023년 지역 예산 및 2024년 및 2025년 계획 기간에 대한 사할린 주법 개정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지역 재무부의 수정된 기본 평가서를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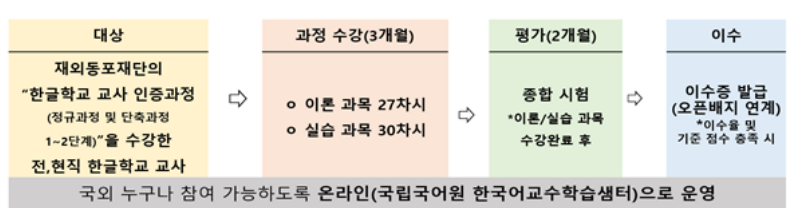
- 지역 예산의 수입 총액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151,286,337,800루블리.
 - 2024년 118,432,420,700루블리.
 - 2025년 115,201,777,700루블리.
- 지역 예산의 지출 총액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216,879,900,800루블리.
 - 2024년 134,215,990,700루블리.
 - 2025년 131,357,737,700루블리.

2023년 지역 예산 적자는 65,593,563,000루블리이다.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K-티처 프로그램

올해 2월부터 수강 시작, 5월 드디어 1호 이수자 탄생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에서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의 한국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2023년 K-티처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1호 이수자가 탄생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추진 중인 K-티처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한글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티처 프로그램은 올해 2월부터 1기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3개월간의 수강 기간을 거쳐 이번 5월 첫 번째 이수자가 탄생하였다. 가장 먼저 전 과정을 수료하고 1호 이수증을 받은 사람은 필리핀 수빅 한글학교의 이미리 선생님으로, 1기 수강생으로서 이론 과목과 실습 과목 57차시를 수강한 후 우수한 성적으로 종합시험을 통과하였다. 이미리 선생님 이외에도 필리핀 수빅 한글학교의 다른 교사들 역시 1기부터 교육에 참여하며 과정을 이수하였다.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2023년 K-티처 프로그램은 연간 총 8기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5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5기 수강 신청은 5월 31일까지이다. K-티처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СахГУ состоялся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19 мая 2023 г.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ФГБОУ В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выступила в качестве организатора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семинар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ный семинар приурочен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30-летию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собрались педагог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тхэквондо и ссирым. В работе семинар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4 организаций: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МАОУ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АОУ Гимназия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АОУ «СОШ №2» г. Корсаков, МАОУ СОШ №4, г. Корсаков, МБУ ДО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МБУ ДО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Анива, МБОУ ДО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Долинск,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при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гыль» пр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ультурный Сахалин» г. Анива, МАДОУ №9 «Чебурашк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СМСОО «Клуб Торнадо», РОСО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представили работу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с молодыми педагогами, определил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Идея проведения такого семинара появилась давно. Мы все, так или иначе, по роду деятельности формируем корейский компонент,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этно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ная площадка имее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прак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 частности, межпредметность участников семинара позволит вместе создавать уникаль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спортивные проекты. В ходе подготовки семинара у педагогов кафедры появилась идея реализовать масштабный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семинара до конца осени 2023 г.», - поделилась Лим Э.Х.,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н Чон Сын Хун отметил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участников семинара и предложил ввести в традицию проведение семинара ежегодно.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ГУ)

Тхэквондисты Сахалина стали призерами на Кубке России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С 19 по 21 мая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состоялся Кубок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Соревнования объединили больше 1600 участников из 35 регион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ведомстве, Кубок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 это второе по статусу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России после чемпионата и первенств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а состязаниях складывался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конку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портсмены Сахалина завоевали восемь призовых мест. Так, обладателями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стали Богдан Лабунский из спортшколы «Кристал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Ульяна Голдина из Холмска.

Серебряные награды в спаррингах взяли — Вячеслав Ковалев из клуба «Штор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воспитанница клуба «Мужество» Варвара Аруева из Чехова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В дисциплине «Ветераны»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 Вячеслав Ким из Чехова, Кирилл Ковалев из Холмска стал вторым в спарринге. Обладателями бронзовых наград в специальной дисциплине по разбиванию предметов в прыжке стали Варвара Аруева и Вячеслав Ковалев.

Тем временем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яла третье общекомандное место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турнире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тхэквондо «Кубок Приморья 2023», которые состоялис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стровитянам удалось взять 36 медалей разн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ванджу состоялась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100-летию «Коре ильбо»

19 мая в городе Квандж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100-летия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Хонам состоя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юбилею старейшего корейского печатного издания на просторах СНГ.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Ким Константин, приветствуя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пожелал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и особо отметил одного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 директора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музея коре-сарам, большого друга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мистера Ким Бен Хака. Литератор Ким Бен Хак долгое время жил и работал в Казахстане, был директором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Алматы, прекрасно владее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С основным докладом о роли «Коре ильбо», как об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хабе коре сарам, выступил профессор, советник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Герман Ким.

Также со сличами выступили докладчики из Кореи, стран СНГ, журналисты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России.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алентин Чен (Москва), писатель Владимир Ким (Ташкент), которые в 80-90 гг. работали в газете «Коре ильбо». Они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работе в редакции. Ветераном газеты является и уроженка Сахалина — писательница Ри Ден



Хи. Журналист, прекрасно владеющий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проработала в газете около 20 лет, возглавляла отдел культуры редакции. Выступа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на порассуждала о том, чем являлось издание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дл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дактор сайта «Коре сарам» Владислав Хан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Борц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и газета «Сенбон»-«Ленин кичи»-«Корё ильбо».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отметила общие моменты в целях и задачах «Коре ильбо» и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ассказала об истори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газеты.

Участники были рады обсудить общие проблемы, поговорить о будущем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ских СМИ.

Состоялось также обсуждение проблем коре сарам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ш корр.)
(Фото: Павел Ким)

В Сеуле прошл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понедельник, 22 мая, в Сеул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Ханьян прошл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ерестройк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мире и ситуац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звес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з МГИМО (У) МИД РФ, тогда как Южную Корею представляли видные политологи и эксперты из различных вузов и научных институтов, включая университеты Ханьян, Хангук, Ёнсе, Сечжон, Кемён, Вонгван, а также Институт Евраз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и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Данный научный форум,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лся совместно Центром исследований АТ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ьян, МГИМО, Институтом Евраз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Сеуле,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бизнес-форума и Фонда национ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еи, стал хорошим шансом для экспертов из двух стран обсудить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ившуюся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бстановку в регионе и мире, влияние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на расстановку сил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сделать прогноз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ситуации.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профессор МГИМО Александр Панов, который ранее работал послом России в Сеуле, назвал данную встречу в «каком-то смысл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изнав, чт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пришлось приложить немалые усилия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конференции. «Мы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онтакты», пообещав, что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будет в Москве. Эксперт отметил, что очень рад видеть 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и откровенно обсудить с ними полит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и двусторон-

них отношениях.

Председатель Института Евраз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Ким Хён Тхэк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ля корейцев «нет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враждебных народов ни на Западе, ни на Востоке»,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скорейшее достижение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еуле Андрей Кулик признал, что «нынешняя встреча проходит в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что специалисты смогут провести откровен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о роли и месте России и Кореи в выстраиваемом новом мировом порядке и будуще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линии на сохранение накопленног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более чем трех десятилетий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багаж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одолж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партнерских связей в практических областях и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ов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нечно, на условиях взаимности», - заявил посол РФ.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АТ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ьян Ом Гу Хо, прогнозируя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ситуации в мире, указал н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явления в Евразии полноценного союза с участием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и и Китая, но также Ирана, Турции, Инди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Доцент МГИМО и бывший посол РФ в Пхеньяне Валерий Сухинин, комментируя события последних лет, выделил «три несчастья», которые негативно повлияли на общую ситуацию в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вязях: пандемия COVID-19, обостр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туации, ч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ослаб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ы и Сеула, а также резкое ухуд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конча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Главы РК и Японии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корейцев - жертв атомной бомбардировки

21 ма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а посетили памятник корейцам - жертвам американской атомной бомбардировки Хиросимы в 1945 году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парке мира. Данный шаг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экспертами как демонстрация приверженности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улучшен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Жертвами атомной бомбардировки стали около 50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Отдав дань уважения погибшим,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провели третью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месяца встречу. «Наше совместное посещение памятник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дань уважения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атомной бомбардировки, но и мужественный поступок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выражение его желания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мирному будущему», - сказал Юн Сок Ёль, открывая встречу.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дальнейшее углуб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о другим глоб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Фумио Кисида в отве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вместное посещение памятника погибшим корейцам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мира во всем мир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остоявшейся за закрытыми дверями,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отметили, что отношения Сеула и Токио находятся на поворотном этапе во всех сферах, включая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безопасность, экономику и науку. Он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дальнейшем укрепл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в дву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так и в трёхстороннем с участием США.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договорились также встречаться при любой возможности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должать челночную дипломатию.

В РК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жертв движения за демократию 18 мая

18 мая в РК отмечают 43-ю годовщину Движения за демократию, которое развернулось в 1980 году в Кванчжу и регионах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Оно стало выражением протеста народа против военной диктатуры тогда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Чон Ду Хвана. Памятной дате была посвящена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вшаяс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Кванчжу. Её тема - «Дух ма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месте с народом».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бещал мужественн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любым вызовам свободе и демократии, поддерживая дух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ванчжу. «Дух восстания - это объединяющая сила, которая связывает нас вместе. Этот дух является ценным достоянием, которое необходимо сохранить, и которое служит примером либеральной демократи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чтив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при подавлении восстания, он сказал, что Кванчжу является историческим местом, где защищали ценности свободной демократии 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Президент поблагодарил матерей, жён и сестёр, которые потеряли близких, за их мужество и преданность духу движения 18 м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около трё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гражданские активисты, члены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борцов за демократию.

ООН освободила от санкций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КНДР

20 мая Комитет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о санкциям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довлетворил просьбы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 отмене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танут возможны поставк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и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лее 75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включая культиваторы, молотилки для сои, переносные водяные насосы и опрыскиватели на солнечных батареях. Данный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увелич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и. Всеми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ставит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генераторы кислорода для тяжелобольных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общей стоимостью 257.500 долларов.

РК стремится войти в число развитых стран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их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направила письмо в американскую аналитическую компанию Morgan Stanley с просьбой добавить РК в список кандидатов на статус развитого рынка. Morgan Stanley классифицирует рынки на основ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 масштаба и ликвидности, а также доступности рынк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РК входит в список развивающихся рынков с 1992 года. В письм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в 2022 году РК была 13-й экономикой мира с валовым внутренним продуктом 1 трлн 66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л 33 тыс. долларов,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Morgan Stanley. По объёму торгов на фондовых рынках РК заняла седьмое место в мире, а по рыночной капитализации - 16-е. РК попала в список кандидатов на статус развитого рынка в 2008 году, но через год была исключена из него из-за недостаточ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рынк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RKI)

В Сеуле прошл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При этом эксперт отметил, что одной из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причин общего кризиса является ужесточение подхода США к своим союзникам и партнерам, когда Вашингтон оказывает грубое давление на другие страны, требуя от них подчини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американским.

Валерий Сухинин также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реакция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на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оказалась куда более резкой, чем могла бы, учитывая удаленность места столкновения от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опосредованное влияние противостоения на регион. "Проблема также и в том, что союзники США подчиняют свои интересы американским, действуя под диктатом Вашингтона", - сказал специалист, отметив, что нынешняя позиция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даже более жесткая и непримиримая, чем это было в эпоху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ГИМО Максим Сучков спрогнозировал ужесточение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 мире, отметив также, что все более важной становятся подход и позиция третьих стран. "От позиций и значимых действий третьих стран все чаще могут зависеть сюжеты, существенно влияющие на расклад в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урция), мировой энергетики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и глобального баланса сил (Индия)", - отметил он, констатируя также все более напористые действия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когда Вашингтон требует однозначно следовать в фарватере ее политиков.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Че Сон Хун признал,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радикальная перестройка системы мировых, а такж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а вернуться в прежнее состояние уже вряд л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ым.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найти свое место в этой новой системе и уже в ней определить, как нам дальше выстра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сказал эксперт, подчеркну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долж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качестве жел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для Сеула он выдвинул следующие предложения: укрепление собственной оборонной мощи, диверсификаци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артнеров, избегание открытых конфликтов и налаживание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максималь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факторов.

Специалист по России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е Ко Сан Ду отметил, что видит оптимальную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роль в виде посредника, медиатора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лагерями и союзами, используя воз-

можности Сеула для общения как с США, так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Эксперт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одолже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Доцент кафедры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ГИМО Илья Дьячков описал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ыражением "могло быть и хуже", выделив как оставшие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е моменты, так и те объективные факты,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о сворачивании интенсивност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актива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ы и Сеула он назвал "относительную беспроблемность в двустороннем поле", имея в виду, чт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двусторонних проблем. "Украинский вопрос в целом лежит вн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поля: на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лияет не он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а непримиримая позиция США и то, в какой мере Сеул готов ей следовать", - отметил Илья Дьячков,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чтобы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Ф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пределял не внешний элемент в виде позиции Вашингтона, а динамика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и интересы наших стран в нашем общем регионе".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ГИМО Дмитрий Стрельцов сказал,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оизошедшее общее ухуд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ы с Сеулом и Токио, в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к корейцам и японцам по-прежнему сохраня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призвав использовать фактор "мягкой силы"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потенциала развития связей РФ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Япони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содействия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Пак Чи Вон признал, что произошло существенное сворачивани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Ф и РК.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м шансом для выхода на рынок России корейских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ейчас крупным корпорациям Кореи трудно работать в РФ, этому мешают целый комплекс факторов. Однако,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это создаст шанс для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Кореи, которые ранее не могли пробиться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Может это и не будут огромные масштабы, но все равно выглядит как возможное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направления продолжен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Ф и РК", - отметил о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В Сеуле прошел красочный парад буддийских фонарей

С пятницы 19 ма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стартовали мероприятия очень красивого фестиваля "Ёндынхве", который также известен как "Фестиваль буддийских (лотосовых) фонарей". В субботу вечером в Сеуле прошел красочный парад фонарей. По традиции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за неделю до гла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буддистов -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приходится на 27 мая.

Мероприятия фестиваля "Ёндынхве" (Фестивала буддийских (лотосовых) фонарей) пройдут и в воскресенье 21 мая. Затем же неделя отводится для буддистов на то, чтобы они посетили храмы, помолились, сделали подношения Будде.

День рождения Будды Шакьямуни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27 мая, согласно календарю буддистов этот год является 2567-м по счету. В Южной Корее, как и в ряде других стран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этот праздник - официальный выходной день. Учитывая, что он выпал на субботу, день отдыха в стране перенесен на понедельник - 29 мая, что позволяет корейцам устроить себе длинные выходные.

Вечером в субботу 20 мая прошло, пожалуй, самое красочное и яркое событие из всего комплекса мероприятий фестиваля. На центральной улице Сеула Чонно прошел парад бумажных лотосовых фонарей. Как известно, цветок лотоса считается священным для буддистов, символизируя красоту и силу духа, который выдерживает все испытания и сложности обыденной жизни, достигая нирваны. Лотос также, как известно, зарождается в грязь пруда,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щаясь в прекрасный цветок.

На параде буддийских фонарей участники несли тысячи больших и малых бумажных фонариков, которые подсвечены изнутри. Участники изготовили самые разные фонари - от огромных до крошечных,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форм и цветов, и прошли парадом от ворот Хончжимун до главного храма ведущего местного буддийского ордена Чогеса.



Фо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Фестиваль буддийских фонарей в Корее уже давно стал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и любим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но и иностранцев. Многие приезжают специально, чтобы попасть на него, а также насладиться прекрасной весенней погод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пока не уступила свое место летней жаре. Зрелище с "плывущими" в вечерней темноте красивейшими буддийскими фонарями и персонажами из буддийской мифологии носит поистине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осле парада в центре Сеула в районе станции метро Чонгак прошли народные празднования и гуляния, которые собрал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тметим, что аналогичные парады фонарей прошли вечером 20 мая не только в Сеуле, но и во многих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Южной Кореи. Буддийские храмы страны сейчас украшены тысячами фонарей и сохраняют свой праздничный наряд еще пару недел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Многодетная сахалинка с помощью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открыла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ают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или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чтобы выйти из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Чаще всего люди направляют средства на открытие небольшого бизнеса.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также для развития подсо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учения и поиска работы.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есть примеры, когда социальная помощь позволила гражданам выйти из числа малоимущих. Многодетная мам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сения Ханина рассказала, как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изменил ее жизнь и помог осуществить мечту.

– Давно вынашивала идею, что могу заниматься изготовлением столярных изделий. Узнала о социальной выплате для развития своего дела. Написала заявление и не ожидала, что настолько быстро его одобряют, и я получу деньги. Купила несколько столя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 начала заниматься изготовлением своих изделий. Сейчас я уже принимаю заказы на изготовление мебели, – поделилась Ксения.

Средства, полученные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должны быть направлены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сахалинца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йти из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период действия контракта островитянам помогают с поиском работы или переобучением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Контракт заключается на период от 3 месяцев до 12 месяцев. В каждом конкретном случае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й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помогает людям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и план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осударства. Полученные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на поиск работы, развитие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ются кондитерское дело, парикмахерские и маникюрные услуги, грузоперевозки, – поясн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талья Терехова.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 один из самых эффектив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проекта «Борьба с бедностью», запуще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актик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позволяет в среднем увеличить доход семьи в два раз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2 год заключено 873 контракта на сумму 140,2 млн рублей. С начала 2023 года на эту меру поддержки уже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40 млн рублей.

Для повышени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 вывода их из-за черты бедности применяются и другие инструменты. С каждой семьей работают индивидуально и принимают адресные решения, чтобы помочь людям выйти из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ласти оказывают поддержку в жилищном вопросе, поиске работы,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получени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устройстве детей в детские сады и по ряду других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 этом году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бизнес из Кита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гласила кита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28-29 сентября 2023 года.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 делегацией из кита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нцзян, прошедшей 22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ил ряд проектов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 которых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партнеры из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 Мы провели деловы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ежде всего,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бизнес из стран АТР, в частности из Китая, пришел в наши нефтегазов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окинули американские и европ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и на правах покупателей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и как поставщик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для сферы добычи и переработки. Сегодня у кита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есть интерес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форуме,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ЭФ-2023. Наш форум подтверждает свой статус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 будет в этом году очень масштабным, собрав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продукции наших предприятий, так и те бизнесы, что готовы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нашей страной в развити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гласил партнеров из Китая к участию в проекте создания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и заключению контракт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его продукц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акого мощного НПЗ изначально нацелено на круп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ынки и нуждается во внешних покупателях его продукции. Кроме того, его появление позволит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зличных видах топлива и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ть цены на них. Также кита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риглашены к расшир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нефтегазовой сфере и локализации бизнеса по оказанию нефтесервисных услуг. В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завершение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намечено на первый квартал 2024 года. Резидентами парка уже стали более 20 компаний. Современная площадка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компании, оказы-

вающие нефтесервисные услуг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логистические и ИТ-услуги, производиться растворы для бурения скважин и технические газы, ремонтироваться и обслуживатьс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а также обучаться специалисты.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создании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месте пересечения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за счет развития морских портов и ави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егион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которая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все типы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В этом году откроется новый аэровокз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пять миллионов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приаэропорт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стиницы, торгово-выставо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ангаров для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грузового терминала, обустройство зоны стрит-ритейла.

У кита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витии мор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новый грузовой порт с грузооборотом 14,5 млн. тонн в год.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6 году. Будет модернизирован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рт, что позволит принимать суда любого типа осадки, способные вмещать более 3000 контейнеров и танкеры-газовозы для перевозки СПГ повышенного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ляет и в обла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удобрений дл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земель. Ежегодный объем субпродуктов сферы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475 тыс. тонн и имеется около 200 месторождений торфа, частично вовлеченных в хозяй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Ежегод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торфокомпостов из ни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более 1 млн. тонн. Кроме того, в регионе име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технических субпродуктов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шкур, рогов, копыт, эндокринных желез). Китайские партнеры могут заняться производством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и биологически активных добавок.

– Нам представили дет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регионе и проекте, в которых мы могли 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Безусловно, мы видим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жем об этом бизнесу и примем решени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кита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ице-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нцзян Ван Исинь.

Резидент TOP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роит круглогодичный апартамент-отель в альпийском стиле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Шале» заверши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нового объекта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Апартамент-отель в альпийском стиле,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к горнолыжному курорту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считывает 37 номеров. Полностью проект,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соглашению с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будет завершен в конце 2024 года. К этому сроку посетителям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жителям города будут доступны 83 номера, а также клубный дом с рестораном на 100 мест и активити-комнатой.

–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мы наблюдаем увеличе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ок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том числе, это связано с развитием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ости привлекает современная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трассы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но, помимо этого, комплекс нуждается и в комфортных местах проживания. Уверен, что с вводом нового апартамент-отеля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нет еще 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 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у тур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Отель, выполнен в стиле альпийской деревни, обладает уникальным расположением – нетронутая природа вокруг сочетается с удоб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ью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ью к горнолыжному курорту.

–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для острова концепция – наши гости могут за пять минут добраться до центра города и при этом иметь все преимущества загородного отдыха. Мы уже можем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нимать более 100 гостей, а после полной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в комплексе смогут проживать до 200 человек. Причем у нас можно поселиться как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так и на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Надеемся также на высокий спрос и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среди туристов, посещающих Сахалин вне горнолыжного сезона, поскольку можем выступать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форумов и мероприятий,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алин Шале» Алексей Залпин.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дано 14 коттеджей с номерами площадью до 200 кв. метров, студиями и комнатами с одной спальней.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учли сложившийся рельеф и перепад высот. Благодаря альпийскому дизайну и натуральным материалам, комплекс идеально вписывается в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К комплексу подведены сет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и ливневая канализац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явятся 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а и зоны барбекю.

В проект уже вложено более 1,2 млрд рублей, что превышает объем ране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азмере 900 млн рублей. Увеличит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екта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Шале» помогли инструменты господдержки в рамках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го режима TOP «Горный воздух».

– Самая главная для нас – это получение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в льготную аренду на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КРДВ дала нам согласие на залог права аренды переданного ранее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под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кредита на сумму более 764 млн рублей. Суще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ой также стали сниженные с 30% до 7,6%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льгота по налогу на имущество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дъездной автодороги к участку, – отметил инвестор.

Каждый десят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ведущий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амк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и арктических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создает новые точки притяжения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В их реализацию уже вложено 31,7 млрд рубле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ДФО и российской Арктики реализуются более 300 проектов, 25 из них уже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ны. В сфере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создано 2,1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 Резиденты TOP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рекреации и услуг реализуют 25 проектов, четыре из них запущены. Резиденты ввели в работу ресторан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вершине горы Большевик,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гостиницы,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й центр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деловое здание. Все это делает остров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туристов, формирует условия для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людей. В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инвестировано 5,1 млрд рублей, более 400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олучили работу, – сообщ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РДВ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Михаил Алешин.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иступили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восьми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начали обустройство парков, скверов, набережных, которые выбрали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ход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на создание новых точек притяже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выдел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з бюджета РФ.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о-западнее перекрестка Пуркаева-Мира. Здесь проложат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выполнят озеленение, установят декоративные качели, скамейки, систему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Также проекто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бустройство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и. В Долинске новый сквер разобьют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Пионерской и Октябрьской.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появятся сразу д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 – сквер отдыха в Красноречье и привокзальная площадь в Ильинском. В Невельске к концу года преобразится набережная по улице 70 лет Октября. А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приступили ко второму этап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 Очень ждем появления обновленного сквера в нашем селе. Думаю, что он станет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жител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Нам давно не хватало та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где можно отдохнуть, погулять с детьми и пообщаться с друзьями,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Красногорска Олеся Медянкин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будет выполнено озеленение территорий, обустройство пешеходных дорожек и зон со скамейками, оснащение декоративными освещением, а также детскими и спорти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для разны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олее 490 млн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100 млн –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людей – одна из важнейших для нас задач. Совсем скор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ат новые места для отдыха. К примеру, в Невельске уже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установке светильников,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чуть позже установят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новый облик должны были получить 20 объект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днако благодар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ограм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 этот год удалось расширить до 25 объектов. Полный список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в раздел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ейчас проходит Вс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де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выбрать, какие из 41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проекта воплотятся в жизнь в 2024 году.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города и отдать голос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старше 14 лет на платформе <https://65.gorodsreda.ru> до 31 мая.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а авторизация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Напомним, нацпроект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проекта – преобразить российские города и села, сделать их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людей, 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 всей стране. Начиная с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порядка 13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외국인 6,466명, 한국문화 전 세계에 알린다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4,536명, K-인플루언서 1,930명 선발 5월 19일 '한국문화홍보활동가 발대식' 열고 활동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KOCIS·코시스)은 '2023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로 6,466명을 공개 선발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2023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제13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129개국 4,536명)과 제4기 K-인플루언서(105개국 1,930명)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모국어로 한국 관련 소식을 기사와 사진, 영상 등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다.

'2023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 발대식'은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맞아 5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라는 의미를 담아 '비욘드 더 케이(Beyond the K)'란 주제로 열린 발대식에는 홍보 활동가 60명이 현장을 찾았다. 해외에 살고 있거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내 거주 활동가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이번에 홍보 활동가로 선발된 독일 출신 카리나 씨는 한국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평소 여행을 좋아해 한국의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K-인플루언서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명예기자로 선발된 프랑스 출신 엘리스 씨는 경희대학교 관광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적 표현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조영만 문체부 차관은 "세계 최대 한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들은 한국의 소중한 친구"라며 "홍보 활동가들이 만든 기사와 영상을 통해 한국과 K-컬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 개설·운영 협력기로

세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는 5월 22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과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



5월 22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총연합회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 업무협약식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지도자 과정'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이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과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서울대와 재외동포재단이 체결한 '한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재외동포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세계한인회총연합회와 협력해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업무협약의 목적이다.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은 총 30회(60시간) 강좌로, 대면 강좌와 온라인 강좌로 구성됐다.

대면 강좌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10월 초와 내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수강생 정원은 40명 내외이며, 수강 대상자는 한인사회 지도자 또는 한인기업 CEO, 경영진, 임원 등 세계 한인사회와의 소통 및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핵심인재다.

서울대는 출석률 80% 이상인 수강생에 한해 서울대 총장 명의 이수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해당 과정을 4기 이상 운영 후 서울대총동창회의 승인을 받아 1~3기를 포함한 모든 수료생에게 서울대총동창회 입회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수강료는 대면 강좌 기간(1차 : 3박4일, 2차 : 4박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숙식(1인 1실, 3식1일) 비용을 포함해 800만원이다.

해당 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전화(031-5176-2352) 또는 이메일(tongil@snu.ac.kr)로 문의하면 된다.

(재외동포신문)

제2회 고려인 꿈너머 장학증서 수여식

사단법인 너머가 2021년부터 시행하는 장학사업

올해 청소년 5명, 대학생 11명, 청년 2명에 장학금 총 6,880만원 지원키로

고려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이사장 신은철)는 5월 16일 오후 5시 경기도 안산시 플로렌스에서 '제2회 고려인 꿈너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너머는 지난 2021년 조영식 SDB인베스트먼트 회장의 후원으로 '고려인 꿈너머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모국에 돌아온 고려인 미래세대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돌봄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이중언어 교육 ▲학업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 정보 제공 ▲진학 및 진로 지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사업이다.

매년 학업성취도와 비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고려인동포 청소년·청년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년 2명, 대학생 10명, 청소년 5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6,88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신은철 (사)너머 이사장, 유복순 SDB인베스트먼트 이사, 노송달 대한고려인협회장, 김효진 경기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 그리고 고려인동포 장학생과 그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꿈너머장학사업의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합창 공연을 시작으로 '고려인 꿈너머 장학사업'에 대한 소개와 장학생들의 꿈과 포부를 담은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 속에서 고려인청소년들은 한국어교육, 동포 지원, 디자이너, 이벤트 기획자, 가수 등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피난동포인 최 발렌티나(원곡고, 가명) 양은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하며 장학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장학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신은철 (사)너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려인 꿈너머 장학사업' 장학



고려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는 5월 16일 오후 5시 경기도 안산시 플로렌스에서 '제2회 고려인 꿈너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너머)

생들이 후원자인 조영식 SDB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본받아 본인과 가족의 성공뿐 아니라 다른 동포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식 SDB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유복순 SDB인베스트먼트 이사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 미래세대를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꿈너머장학사업과 고려인너머가 고려인동포 후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안전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꿈너머장학생들을 대표해 단상에 나온 최 아나스타시아 양(성균관대생)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바이오훈약품을 통해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꿈을 이루고자 했지만 너무 큰 액수의 등록금에 좌절했었다"며 "하지만 '고려인 꿈너머 장학사업'의 장학생에 선발돼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재외동포신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염원, '신통일아리랑 평화축제' 성료

천주평화연합(UFP)·한국종교협의회·대한불교도법황종 금강사, 공동개최

한국 전통민요 '아리랑'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천주평화연합(UFP)·한국종교협의회·대한불교도법황종 금강사는 지난 19일 경북 영주 금강사에서 '신통일아리랑 평화축제'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 및 기독교 각계 대표와 신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스님, 대한불교도법황종 종정 해경스님, 대한불교도법황종 총무원장 도봉스님, 박영배 UFP 영남회장, 이현영 UFP 한국회장, 유준수 가정연합 대구경북 대교구장, 변사흠 UFP 대구경북회장, 박성만 경북도의원, 김주용 영주시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흥운종 UFP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1부 기념식, 2부 '신통일아리랑 평화축제'로 나뉘어 개최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신통일아리랑 평화축제 개문, 환영사, 특별공연, 신통일아리랑 공연, 만세삼창 등으로 치러졌다.

또, 행사는 극단 '꿈꾸는씨어터'의 축제를 알리는 해무(海霧) 대북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공연에선 변화무쌍한 바다의 생명력을 깊은 울림으로 표현했다.

이날 참석한 이현영 UFP 한국회장등 주요 인사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로 전진이 없는 세계평화를 염원 하는 주문했다.

먼저 대한불교도법황종 총무원장 도봉스님은 환영사에서 "많은 각계 종교 관계자들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아리랑'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모두가 하나되는 신통일한국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영 UFP 한국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한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역사를 쓰

는 순간을 만들고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통일 아리랑 평화축제를 열게 됐다"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심을 담은 공심(公心)을 갖고 하나가 되면 신통일 한국과 남북통일의 기운이 이 자리에서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배 UFP 영남회장은 "'우생마사(牛生馬死·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흘러가 하루에 닿아 해염을 쳐 나와 살았다는 것이 우생마사다"며 "이 같은 말처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통일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 염원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스님은 축문을 통해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날이자 경사스러운 날이라 생각한다"며 "아리랑은 참 진리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곡이다. 오늘은 종교와 우리 한민족 전체, 나아가 우리 세계 인류를 초월해 일체 중생 모든 생명이 하나되는 뜻 깊은 자리인 만큼 모든 이들이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 행사는 △경산아리랑보존회의 '경산아리랑 화전놀이'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 및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의 영천아리랑·광복군아리랑·독립군아리랑 △왕십리아리랑보존회 및 영남아리랑보존회의 왕십리아리랑·대구아리랑·밀양아리랑 △춘천의병아리랑보존회 및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 춘천의병아리랑·구미의병아리랑 △왕십리아리랑보존회의 사할린아리랑·본조아리랑 등으로 구성된 '신통일아리랑'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참석자 모두 '신통일, 우리는 하나' 합창, 만세삼창, 폐회 선언 등으로 행사는 무사히 마무리됐다.

(cnb뉴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고객들은 현지 상품으로 특히 식자재를 많이 구매했다. 그리고 지역 전통에 따라 현지 예술가들의 공연이 있었고,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으며 경품 추첨을 포함하는 전통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는 сахалин의 지역 농업 박람회가 봄과 가을 일년에 두 번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Сотни человек посетили ярмарку «Весна-2023»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Весна-2023», которую посетили сотни гостей 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откры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Он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фермерам и садоводам за их упорный труд и пожелал им успехов в работе.

Главной целью ярмарки было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доступа к местам реализации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а жителям острова —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обрести свежи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более 200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з 11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Кроме овощей, мяса,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и меда, на ярмарке 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купить рассаду, цветы, семенной материал, изделия ручной работы, а также продукцию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окупатели были рады приобрести местные товары, особенно посадочный материал. Кроме того, по традиции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выступления местных артистов,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розыгрыши призов.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добавили, что областн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одится дважды в год —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광저우에서 열린 GITF 2023 국제 여행 박람회에서 сахалин이 가장 독특한 관광지로 선정돼

수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сахалин 여행사 11곳이 광저우에서 열린 GITF 2023 국제 박람회에 참가했다. 행사 첫날부터 сахалин 지역은 '가장 독특한 여행지'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텔레그램 채널 "сахалин주 비즈니스 뉴스"에서 보도했다. 이 국제 박람회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관광객들에게 сахалин의 미식, 생태, 낚시 투어가 소개되었으며 겨울 관광 시즌에 특히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сахалин의 화창한 날씨와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 중국인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Сахалин назвали самым необыч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туризма на выставке GITF 2023 в Гуанчжоу

В Гуанчжоу стартов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GITF 2023, куда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а отправились 11 сахалинских туроператоров.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воевал звание «самого необыч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ообщил Telegram-канал «Деловые ново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тенциальным туристам из Китая представил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рыболовные тур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зимнему туристическому сезон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именно сахалинская солнечная и снежная зима вызывает у жителей Китая особый интерес.

сахалин의 어린이 도서관 프로젝트가 국제 대회에서 최고의 프로젝트로 선정

지난 5월 19일 제1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서적 박람회에서 сахалин 지역 어린이 도서관 부관장인 이리나 이바노와가 '미래의 책' 국제 청소년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도서 공원"과 "교실 도서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제안했으며, '새로운 도서 형식' 부분에서 두 지역 프로젝트가 모두 1위를 차지

했다고 сахалин 지역 문화 기록부의 언론 서비스가 보도했다.

"도서 공원"과 "교실 도서관" 프로젝트는 сахалин 지역 어린이 도서관의 파트너인 비영리 단체 "독서 센터" 및 GS그룹과 함께 지역 문화기록부의 지원을 받아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 독서를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작업하였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결과이다. 이 프로젝트는 부모 및 러시아어 또는 문학 교사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독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сахалин 프로젝트는 포럼 참가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Проекты 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вошли в число лучших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На XVIII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нижном салоне 19 мая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Ирина Иванова успешно защитила проекты "Книжный парк" и "Классная библиотек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Книга будущего". В номинации "Новые форматы чтения" оба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а заняли первое место,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ы "Книжный парк" и "Классная библиотека" были реализованы в 2022 и 2023 годах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овместно с партнер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 АНО "Центр чтения" и компанией GS Group.

Это огромный успех, и он не случаен: проекты отличаются нестандартным подходом в работе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детской книги и формированию у ребят устойчивой потребности в чтении книг. Они получили мног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отзывов от родителей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а главное — очень нравятся юному поколению читателей. Презент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ектов вызвала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 | | | | | |
|--|---|--|--|--|--|
|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